

프로야구 전망대

# 투·타 살아난 KIA, 상위권 도약 발판 다진다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투 타 조화를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롯데자이언츠에 워닝시리즈를 따낸 뒤 주말 삼성라이온즈에게도 2승 1패를 기록했다.

그 결과 31승 1무 27패로 승률 0.542를 기록, 리그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상위권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3위 삼성라이온즈와는 2.0게임차, 2위 KT위즈와는 2.5게임차까지 따라붙었다.

반면 5위 한화이글스가 1.0게임차로 추격하고 있고, 6위 두산베어스도 2.5게임차 뒤를 쫓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KIA는 이번 주 주중 대전에서 한화와 맞붙은 뒤 주말에는 광주에서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모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 만큼 이번 6연전 결과에 따라 상위권 추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KIA 타선의 흐름은 좋다. 지난주 팀 타율 0.279로 리그 공동 3위에 올랐고, 홈런은 10개로 리그 3위를 기록했다.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848로 리그 3위에 자리하며 공격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실책 6개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은 보완 과제로 남았다.

가장 돋보인 선수는 주장 나성범이다. 나성범은 지난주 6경기에서 19타수 9안타 2홈런 3타점 타율 0.474를 기록하며 중심타선을 이끌었다.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특유의 장타력을 되찾으며 타선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고 있다.

김도영의 방망이도 뜨겁다. 김도영은 6경기에서 23타수 9안타 4홈런 6타점 타율 0.391을 기록했다.

장타 생산 능력을 앞세워 공격을 주도하며 리그 정상급 타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대체 외국인 타자 아테리클도 힘을 보

9~11일 대전 한화전

12~14일 광주 두산전

주간 ERA 2위·타율 3위

수비 보완을 과제로 남아

됐다. 지난주 24타수 8안타 2홈런 6타점 타율 0.333을 기록하며 중심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 또한 반갑다. '루키' 김민규는 6경기에서 8타수 4안타 타율 0.500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7일 삼성전에서는 데뷔 후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아 2루타를 포함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마운드 역시 안정감을 찾고 있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2.78로 리그 2위에 올랐다. 선발진과 불펜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의 원동력이 됐다.

외국인 에이스 이담 올리의 활약이 눈부시다. 올리는 지난 5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2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 2.39로 리그 1위, 7승으로 다승 공동 1위, 탈삼진 82개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KIA 선발진의 확실한 중심축이다.

제임스 네일은 지난 2일 롯데전에서 6이닝 무실점, 7일 삼성전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냈다. 시즌 내내 기록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정감을 찾는 과정에 있다.

KIA는 이번 흐름 속에서 주중 한화와 맞붙는다.

한화는 현재 30승 1무 27패 승률 0.526으로 리그 5위에 올라 있다.

팀 평균자책점은 4.80으로 KIA(4.01)를 밀돌지만, 팀 타율은 0.282로 KIA(0.266)를 앞서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KIA가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주중 3연전은 상위권 도약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 팀 모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대전 한화이글스파크에서 만날 한화는 9일 양언청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황동하를 선발로 투입한다.

한화와 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3연전을 치른다.

두산 역시 KIA를 추격하고 있는 순위 경쟁팀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연속 워닝시리즈를 달성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KIA가 이번 주 6연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규성(왼쪽)과 박민(오른쪽)의 '람사르 데이' 유니폼 실착 모습.

## KIA, 13일 두산전서 '람사르 데이' 습지 보전 중요성 알리는 환경 캠페인

KIA타이거즈가 오는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환경 보호의 가치를 알리는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람사르 데이는 KIA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함께 마련하는 환경 캠페인이다.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의 의미와 습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는 보기 드문 환경 분야 협력 사례로 꼽힌다. 프로야구단과 국제 환경기구가 함께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환경 캠페인으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자연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경기 시구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박천규 대표가 맡아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선수단은 람사르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유니폼은 람사르 협약의 상징색인 청록색을 바탕으로 습지를 형상화한 패턴을 적용했으며, 마스코트 하랑이 패치와 함께 'I ♡ Wetlands' 문구를 새겨 습지 보전 메시지를 담았다.

팬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람사르 센터는 플로깅(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 세트를 배포하며, 경기 전과 경기 중 플로깅 활동을 인증하는 전광판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 중에는 습지 보전 퀴즈 이벤트를 통해 람사르 데이 특별 유니폼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KIA는 일회성 행사를 그치지 않고 람사르 센터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간다. 타이거즈 크리켓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장족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한국 '5일' 체코는 '0일'... 흥명보호 잔디 적응 앞선다

흥명보호가 체코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첫판을 앞두고 결전지와 똑같은 잔디 위에서 담금질하고 있다.

8일(한국시간) 흥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앞두고 이틀째 훈련을 진행한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보판의 치바스 바에 베르데는 멕시코리그 명문 구단 CD과달라하라의 전용 훈련 시설이다.

한국의 조별리그 1, 2차전 결전지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역시 CD과달라하라의 홈구장이다.

실질상 경기장과 똑같은 그라운드에서 훈련하는 점은 태극전사들에게 적응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체코는 텍사스주 맨스필드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훈련한다. 천연잔디를 갖추고 있지만 과달라하라 스타디움 그라운드 환경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체코는 경기 바로 전날에 과달라하라로 이동할 계획이다. 짧게 과달라하라에 머물러 '고지대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똑같은 잔디 위에서 흥명보호가 6~10일 닷새간 훈련할 때 체코는 한 번도 훈련하지 않고 결전을 맞이하는 셈이다.

흥명보호는 베이스캠프 후보지 70여 곳을 검토한 끝에 치바스 바에 베르데를 1순위로 FIFA에 제출했고 그대로 낙점됐다.

훈련 시설도 대표팀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실제 훈련을 위한 대형 천막 시설이 새로 마련됐고, 야간 훈련을 돕기 위한 조명 시설도 새로 설치됐다.

대표팀 관계자는 "CD과달라하라 구단 측에서 FIFA 지원을 받아 시설을 확충했다. 답사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신인왕 넘어 챔피언으로...서교림, KLPGA 첫 우승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

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왕 서교림이 마침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서교림은 지난 7일 강원도 원주 성문안CC(파72)에서 열린 2026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총상금 15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한 서교림은 김민선(14언더파 202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서교림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 2억7000만원을 추가하며 시즌 상금 5억3574만5714원을 기록, 상금랭킹 1위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 역시 공동 11위에서 단독 선두로 도약했다.

2024년 8월 KLPGA에 입회한 서교림은 지난해 투어 30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두 차례를 기록하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올 시즌에도 더 시에나 오픈 준우승, E1 채리티 오픈 공동 3위 등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우승 가능성을 높여왔다.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서교림은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1번 홀과 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은 데 이어 7번 홀과 9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에만 4타를 줄였다.

경쟁자들이 주춤한 사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후반 들어 위기가 찾아왔다. 12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고, 추격자들의 압박도 거세졌다.

특히 박혜준이 17번 홀 버디로 한 타 차까지 따라붙으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서교림은 흔들리지 않았다. 16번 홀(파5)에서 버디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는 파 퍼트를 성공하면서 첫 우승을 자축했다.

서교림은 "이렇게 첫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코스

도 너무 좋아 행복한 마음이었다"며 "오늘은 약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려고 했다. 9번 홀 빈 위기가 어려웠는데, 세컨드 샷 때 75미터만 남겼으면 좋겠다고 캐디와 상의했다. 실제로 딱 75미터가 나와서 자신감을 갖고 58도로 샷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첫 번째 목표가 첫 우승이었고, 첫 우승을 했으니 이제 다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승왕까지 노려보도록 하겠다"면서 "다승을 노리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상금왕, 대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했던 박민지는 최종 합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25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한 이동은도 같은 성적으로 공동 25위를 기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20세 신예' 문동현, KPGA 선수권 최연소 챔피언 등극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데뷔 19개 대회 만에 정상

한국 남자골프의 차세대 기대주 문동현이 KPGA 선수권대회 역사에 새 이름을 새겼다.

문동현은 지난 7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 남·서코스(파71)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대회(총상금 16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를 적어낸 문동현은 김찬우(8언더파 276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지난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문동현은 2025년 KPGA 투어 데뷔 후 19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신고했다.

우승 상금 3억2000만원과 함께 2031년까지 KPGA 투어 시드를 확보했으며,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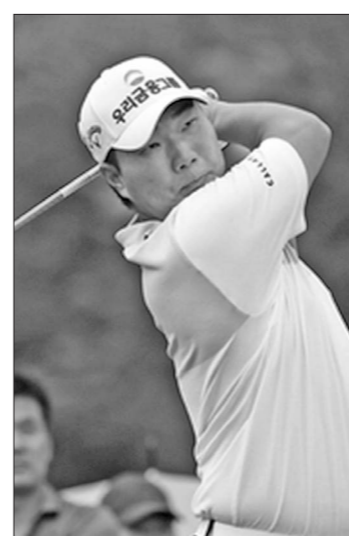
특히 2006년생인 문동현은 만 20세 2개월 2일의 나이로 KPGA 선수권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1960년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한정상(현 대한프로골프협회 고문)의 20세 4개월 10일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문동현은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2363.67점을 기록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상금 순위 역시 4억4200만원으로 2위까지 뛰어오르며 시즌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문동현은 이미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2019년 주니어 국가상비군을 거쳐 2023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24년에는 아마추어 신분



으로 출전한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골프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종 라운드는 치열한 혼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단독 선두로 출발한 김준형이 중반 이후 흔들리면서 우승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상위권 선수들이 3~4개 홀을 남겨둔 시점에는 엄재용, 조우영, 김찬우, 문동현 등 4명이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승부의 균형을 깬 선수는 문동현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16번 홀(파4)에서 나왔다. 문동현은 약 30야드를 남기고 시도한 어프로치 샷을 그대로 홀컵에 집어넣으며 극적인 집인 버디를 만들어냈다.

우승을 향한 흐름을 단숨에 가져오는 천금 같은 한 방이었다.

단독 선두로 올라선 문동현은 남은 17번, 18번 홀을 모두 파로 막아냈다.

이후 경쟁자들의 추격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추가 버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문동현이 KPGA 최고 권위 대회의 주인공이 됐다.

엄재용과 이재진은 최종 합계 7언더파 277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고, 왕정훈과 김준형은 6언더파 278타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문동현은 첫 우승과 함께 한국 남자골프의 새로운 간판 후보로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